

### 전시구성

#### 242개의 독방

獨房(독방) 사상의 전염을 차단하라  
조선 최초의 독립 구치감, 경성구치감

#### 격리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조선의 거물급 인사 구치감에 갇히다  
독립과 자유를 염원한 이 땅의 젊은이  
'불온한' 사상범들 식민지 체제에 맞서다

#### 죽음의 집에서의 삶

독립운동가의 옥중생활  
독립운동가와의 대화

### 오시는길



- 3호선 독립문역 5번 출구
- 간선(파랑) 701, 702A, 702B, 704, 705, 708, 752
- 지선(초록) 7019, 7021, 7737, 7025

### 관람안내

#### 관람시간

여름철(3~10월) | 09:30~18:00  
겨울철(11~2월) | 09:30~17:00

#### 정기휴관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날

#### 홈페이지

<https://sphh.sscmc.or.kr>



### 전시정보

총괄 | 김영을·이진희  
공동기획 | 김철현·민아란·이재은·허예슬  
연출·시공 | 디자인마룬  
후원 | 국가보훈부  
주최 | 독립기념관·서대문형무소역사관  
자료제공 | 독립기념관·국가기록원·몽양여운형기념관·국사편찬위원회  
기술협력 |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강지수·김지영·이승혜)  
참여작가 | 이재준·사나고

## 광복79주년기념 공동기획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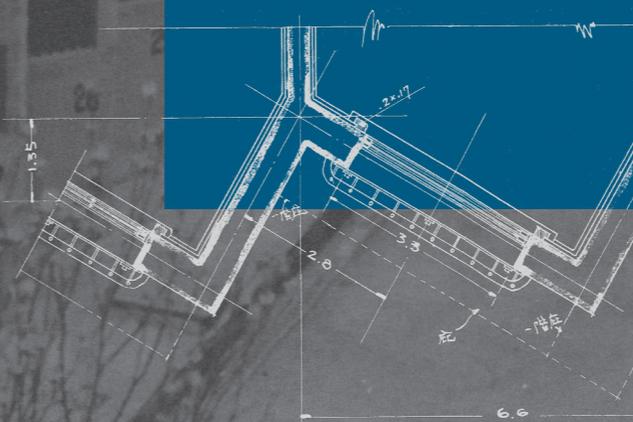
Co-Exhibition for the 79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From Solitary Confinement Cell to Independence

# 독방에서 독립까지

2024. 8. 14. - 11. 13.

서대문형무소역사관 10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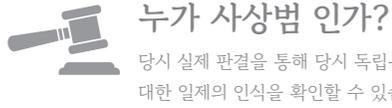
### 전시를 열며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온 경성구치감과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935년 5월 일제는 사상범을 격리 수용하기 위한 특수 감옥 '경성구치감'을 신축하였습니다. 일제는 283개의 감방 중 242개의 방을 독방으로 채우고 '독립'을 외친 이들을 격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철통같은 감시도, 혹한의 독방도 '독립'을 꿈꿨던 독립운동가의 생각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막진 못하였습니다. 전시를 통해 '독방'에서 '독립'을 꿈꾸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On the occasion of the 79th National Liberation Day, this exhibition takes a look at the Gyeongseong Detention Center and the independence activists who were incarcerated in it. In May 1935, Imperial Japan built a new special prison, Gyeongseong Detention Center, within Gyeongseong Prison (now the Seodaemun Prison History Hall) to house political offenders in isolation. Of its 283 cells, 242 held, in solitary confinement, those who strove for national independence. However, neither the Detention Center's ironclad surveillance nor the freezing temperatures of solitary confinement could stop the prisoners, who dreamed of national independence, from influencing oth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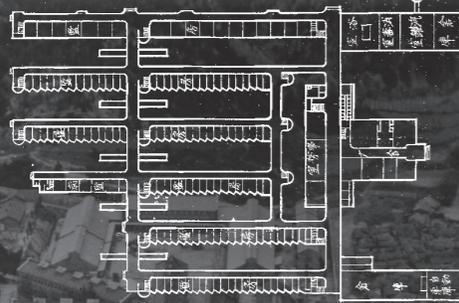
## 242개의 독방 獨房(독방) 사상의 전염을 차단하라

일제는 일반 수감자들이 사상범의 생각에 동조하는 현상을 '사상의 전염'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기 위해 사상범을 독방에 격리 수용했습니다.



## 조선 최초의 독립 구치감, 경성구치감

1935년 사상범 전용 특별감옥 '경성구치감'이 완공되었습니다. 총 283개의 감방 중 242개의 방이 독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시 사상범 통제 정책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성구치감 도면(1936년)

1945년 서대문형무소 전경

## 격리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조선의 거물급 인사 구치감에 갇히다

민중의 선두에서 자주독립을 외치던 안창호와 여운형 역시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은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이 곳에서도 조국의 독립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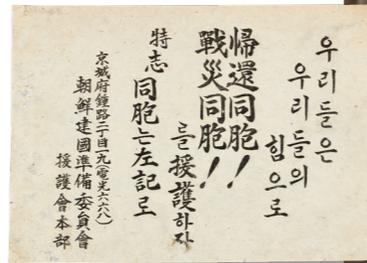


안창호 수형기록카드 인물사진(1937년)



국민보(1959. 2. 25.)

함께 투옥된 장리옥의 회고록에는 곳곳함을 잃지 않았던 안창호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원호회 전단



여운형 수형기록카드 인물사진(19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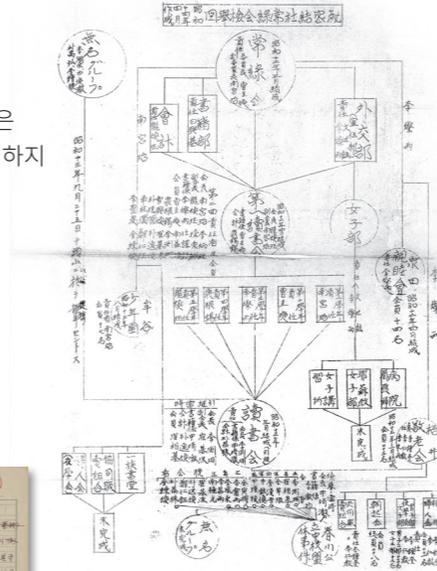
감옥 안에서도 독립된 국가에 대한 구상을 멈추지 않은 여운형은 출옥 직후 조선민족해방연맹을 조직하였다.

## 독립과 자유를 염원한 이방의 젊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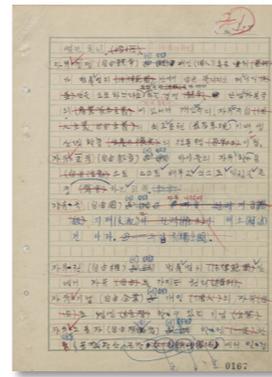
일제강점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의 젊은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독립을 꿈꾸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 상록회사건

춘천공립고등보통학교, 춘천중학교 등의 학생들은 초록빛과 같이 의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의 비밀결사 상록회를 조직하였다.



비밀결사상록회검거도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

### 조선어학회사건

조선어학회사건으로 압수되었던 조선말 큰사전 편찬원고이다. 한글을 보전하기 위한 당시 학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단파방송사건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총애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1930년대 후반 생산된 어머니사의 라디오

Voice of America 라디오 방송 이승만 연설 중(1942년 6월 13일)

## 죽음의 집에서의 삶 독립운동가의 옥중생활

독방에서 사상범이 보내는 하루 하루는 평가의 대상이 되어 그들이 받는 처우와 직결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차별은 전향을 유도하는 효율적인 통제수단이었습니다.



우량수 감방(대전형무소)



옥사 복도

## 독립운동가와의 대화

독방에서 독립을 염원하던 안창호와 여운형의 목소리를 복원하였습니다. 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대전형무소에서 가출옥한 안창호를 맞이하는 여운형(1935년)